전법 일기

앙굴리말라도 正覺 이뤘다
재소자들에게 불교 전하자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안녕하세요? 대전교도소 복지 담당인데, 스님께서 교도소 교정활동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불교법회의 법문과 교리교육, 자매상담을 통한 도움을 요청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3대 종교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불교의 도움이 가장 적어서 불자 수감자들이 가장 도움을 적게 받고 있다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였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한 끝에 불교대학 출신인 포교사들에게 교리를 부탁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무량회 회원들에게 자매상담을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절로 모셨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겁이 난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어려워들 하셨다.

그때 나는 부처님의 제자 중 '앙굴리말라'라는 제자의 얘기를 하였다.

"앙굴리말라는 희대의 악인이었고, 살인을 여러 번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출가 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기꺼이 자신의 업을 씻기 위해 수행했다. 앙굴리말라의 삶과 수행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과의 만남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적은 힘이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수감자는 범죄인이다. 하지만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 정착으로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교정교화의 주된 목적은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 범죄자의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건강한 이웃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비록 두렵고 어렵게 시작된 교화봉사 활동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이 "마음도 착하고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빠른 사회 복귀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갔으면 해요. 적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교정교화 도움에 힘쓰고 계신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통도사 전계사 우설 덕문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수계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덕문 스님은 "수계법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죄업을 씻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하셨다.

수계법회를 통해 계를 받은 50여 명의 수용자들이 참회 진언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도 수 만겁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⑥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1)

나를 알고 싶다면 내면 욕망 알아야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그 층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instinct)'입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강렬한 본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비둘기를 보면 하루 종일 먹이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연못의 한가로운 잉어들도 먹이를 뿌리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개체유지'를 위한 강렬한 식욕입니다. 봄밤 골목에서 밤새 처절하게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짝을 차지하기 위해 온몸이 찢어지도록 싸우는 바다표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족번식'을 위한 강렬한 성욕입니다. 동물들은 개체유지와 종족번식을 위해 그것이 채워질 때마다 뇌의 보상회로에서 쾌감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고귀한 교양과 찬란한 문명을 이룬 우리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drive)'입니다. 인간은 본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관계를 위해 도덕과 윤리를 학습하고 본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 억압된 본능에너지는 의식 저편에 숨어 '무의식적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괴물 같은 충동이 쏟아져 나올까 조마조마해합니다. 혹 자신이 미쳐서 이상한 충동이 새 나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의식과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라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욕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
욕망 알면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충동 등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

세 번째는 '욕망(desire)'입니다. 욕망은 결핍, 혹은 틈을 메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 비교를 통해 생긴 틈을 메우려는 마음이 욕망입니다. 뭔가 '금기'되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길 때 그 틈을 메우려는 마음이 욕망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자꾸만 빈틈을 찾아다니므로 욕망이 이사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가진 좋은 운동화를 보면 그 운동화를 갖고 싶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는 다시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게임컴퓨터를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과 같아 '갈애(渴愛)'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love)'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기이한 욕망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채워지는 역설적인 욕망입니다. 주는 나도 행복하고 받는 상대도 행복한 유일한 욕망입니다. 주는 나만 행복하고 받는 상대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서운 집착이니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 숨어 사는 다양한 욕망을 살펴본 것은 내가 누군지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그 욕망을 알아차리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능, 충동, 욕망'을 성숙한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사랑 하나가 더해집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국가 행사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고, 보훈은 애국정신을 기리어 공훈에 보답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6월은 유난히 국가적 아픔이 많았다. 1920년 6월 6~7일 봉오동 전투, 1926년 6월 10일 6·10 만세운동,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등. 근현대사 주요 사건이 유독 6월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매년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최하고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주관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6월 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됐다. 참석대중은 천도의식과 추모법회로 조국 독립과 평화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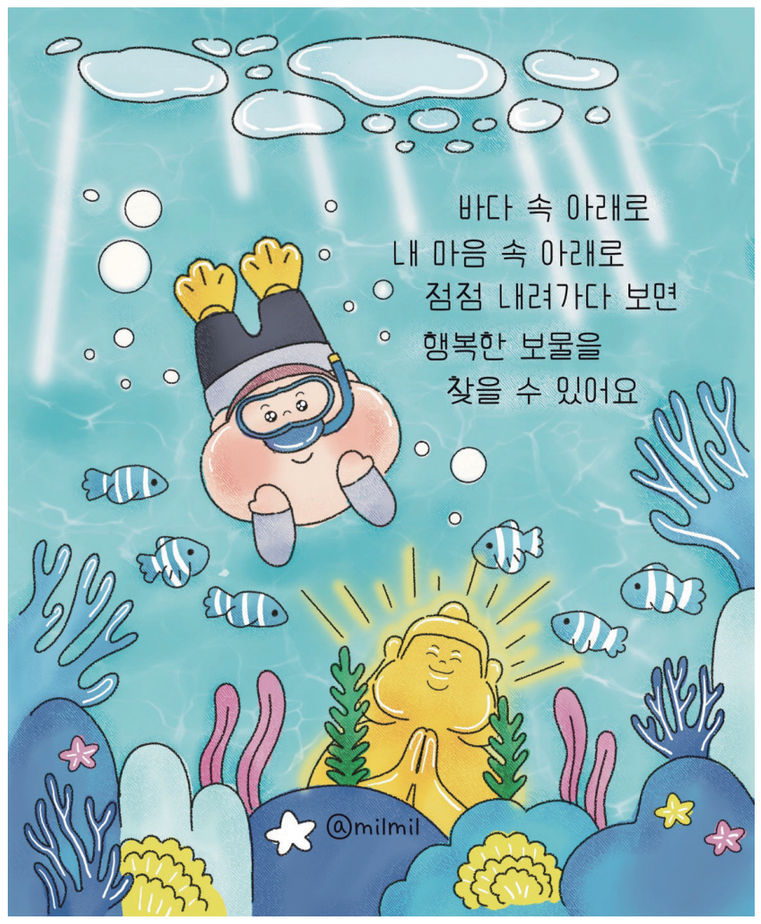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내년부터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종단이 주최하는 국가적 행사로 승격시킬 것을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숱한 위험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한 건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들 덕분"이라며 "(호국영령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이같은 역사를 잘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 내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종단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이 있어 가능했다. 진우 스님의 말처럼 국민 모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되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종단 차원 추모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